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시편 57:1-11)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본편은 사울을 피해 다윗이 가드 지방을 떠나 광야로 나와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그 당시 다윗을 따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고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 되었다고 했지만 다윗은 동굴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매우 불확실했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1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 피해 있었지만 동굴이 피난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육신은 어두운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함을 찾은 것입니다.

시편 57편에는 ‘하나님이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오는데 이름 또는 대명사로, 또 피난처, 날개 그늘로 나타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성소나 장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법궤의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그룹들의 날개가 있습니다(출 25:20-22).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은 것은 출 7:9, 왕상 6:27, 왕상 8:6-7절 등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성전 그룹들의 날개를 말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수직관계에 있고, 거기서 안전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물론 그룹의 날개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출 19:4),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신 32:1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시편 91:2절에서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고, 시편 91:4절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는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다윗 역시 시편 57편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받은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또한 구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것입니다(삼상 24, 26장).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나

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 이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단 6:22).

이 절망의 날에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살았으나’(4절)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안전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다윗 이전에 산 사람이었다면, 또 다윗이 다니엘이 한 말을 알았다면 다윗은 그 말을 사울에게 했을 것입니다.

2.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은 주제상 2부로, 1부는 3연(stanzas)으로 되어 있습니다.

- 1부 : 1연(A) -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1절)
- 2연(B) -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 (2-3절)
- 3연(C) - 다윗의 원수와 그들로 인해 다윗이 위기에 빠졌다(4절)
- 2부 : 1연(A) - 다윗의 원수를 설명한다(6절)
- 2연(B) -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찬양한다(7-8절)
- 3연(C) - 하나님께 애소한다(9-10절)

이처럼 본시의 구조는 A B C / 합창(5절) / C' B' C' / 합창(11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의 전장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문제 안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안에 숨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C연에서 다윗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빠짐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B연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기며 자기 마음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직접 호소한 A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2부에서는 순수한 찬양을 드립니다.

3.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 하나이다”(5절, 11절).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고,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 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는 것과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받으실 이 영광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5절과 11절에서 반복된 합창은 하나님이 높아지셨거나 높아지실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높아지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높임을 받을 때 세상은 흥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므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 특권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2007 홍해작전

3부 - 성경통독 사경회 시작

17일(주일) - 25일(월) 오전 5시 본당에서

2007년 홍해작전이 반환점을 돌았다. 오늘부터는 3부 순서로 성경통독사경회가 시작되었다. 성경통독사경회는 홍해작전 1부와 2부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추석과 설날에 실시했던 성경통독사경회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과 홍해작전 공동기도 후 곧바로 통독에 들어간 후 주기도로 마친다. 통독범위는 창세기 1장부터 매일 40쪽씩 통독한다.

홍해작전이 끝난 후에도 성경통독사경회는 7월 31일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에는 새벽기도회가 5시30분부터 6시까지이므로 매일 18쪽씩 통독하게 된다. 그리하여 7월 31일에는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서 21장까지 통독하게 된다. 이것은 본 교회에서 연초에 배부한 <일 년 통독 성경통독카드>의 통독범위와 일치하므로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매일 통독을 계속하면 모든 성도들이 연말에 본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경 일 천 독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홍해작전을 통

하여 <성경 일 천 독 대장정>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성경통독 사경회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 하기 바란다.

<홍해작전 4행시 모집>

홍해작전 4행시를 모집하고 있다. 홍해작전 4행시는 **홍·해·작·전 네 글자로 시작되는 시를** 적어내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교구,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란다.

시상은 7월 1일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시간에 하며 대상과 입선으로 나눠 대상은 유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청장년부 1명 등 각 3명, 입선은 부서 구별 없이 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홍해작전 4행시는 교회 1층 사무국 앞에 비치된함에 넣으면 된다.

성경통독사경회 일정

일	17(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주)	25(월)
인도자	한상은	장석남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통독자	이규정	서명철	이태훈	한상은	장석남	윤영국	정수길	이규정	서명철
	윤영국	정수길	이규정	서명철	이태훈	한상은	장석남	윤영국	정수길
	한상은	장석남	윤영국	정수길	이규정	서명철	이태훈	한상은	장석남
범위	창1-27	창28-50	출1-25	출26-레10	레11-민4	민5-25	민26-신11	신12-34	수1-24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4월 중에 개강한 열린프로그램이 모두 종강하여 오늘 찬양예배에 수료식을 갖는다. 성도와 이웃 주민을 위한 열린프로그램은 매년 전후반기 각 10주간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성경공부도 하며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경대학 수료자>

(마태복음반)

김영미5 김영미9 김용혁 김혜중 박옥 박길희 박순복 박춘자 박화실 여상범 이금순 이상호 이태인 주화인 최명순 최미경

(디도서반)

강석조 김영주 김은순 김혜중 박두영 이관규 이남성 이부자 이상호 이순영 이해순 정병무 진선자 최무순 한종우

(신명기반)

김상욱 김영진 김지호 김진희 김혜영 류장렬 박길희 박분옥 박이선 백혜영 서은영 안미경 윤용미 이상호 이옥심 이은희

(소선지서2반)

이상호 김영주 이해순 유명석 정병무 김용혁 강석조 조정욱

이상은 노창훈 이화용 박선미 최정희 이경구 광선자 이계홍

<경로대학>

박두영 박상운 이기춘 고석규 김태기 원명희 한지종 유봉녀 최무순 김순인 고후덕 김인순 조봉환 박희은 박형숙 김종순 김기순 이옥남 박분화 왕순덕 주백요 이기순 김덕자 노은선 박상금 신종현 김하중 정연수 백영숙 김종자 김춘정 이민화 서수경 김길자 문순례 엄정순 김정희 김봉녀 정귀임 이은남 김봉실 최순애 이순이 최향봉 심상덕 공진문 국산옥 허인숙 권순례 유환희 김계순 오이순 조명려 조길금 김신애 신정순 서귀용 윤만현

<주부대학>

김경진 김영미 김영식 김정희 남효문 박순복 소선자 이경숙 조순엽 조정욱 홍순복 홍정란

<찬양대양성반>

김상욱 고영진 최혜진 유혜영 황금선 박민자 이윤미 김고은 전미선 박상운 박원옥 김미선 정용문 최광성

성경 일천독 한반도 지도 금주 부착

- 5층 계단 참에 -

우리교회는 성경 일천독 대장정을 처음 시작하며 공고한 대로 성경을 완독한 성도들의 사진과 이름을 부착할 한반도 지도를 5층 계단 참(옆)에 금주 중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사진은 한반도 지도에 성도들이 성경을 완독한 순서대로 부착할 예정이며 교회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은 통일성을 주기 위해 사양하며 성경을 완독한 성도들 중 사진이 없는 성도는 7층 703호 멀티미디어실에서 촬영하기 바란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분발하여 성경 일천독 대장정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도록 기도한다.

6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5독> 김경철 장로(12교구)
- <4독> 채복순 성도(7교구) 김하니 선생(11교구)
- <3독> 이윤영 권사(5교구)
- <2독> 장양일 집사(1교구) 전인화 권사(2교구)
강영순 집사 김계순 권사 김민철 집사 김병용 집사
김희진 권사 최위춘 집사(6교구) 박희래 집사(사랑부)
권길자 권사(14교구)
- <1독>
(1교구) 김명숙 권사 김영옥 집사 이소명 집사 정태룡 장로
(2교구) 강영구 집사 김찬진 권사 이은희 집사 한주찬 집사
(3교구) 손순자 성도
(4교구) 민정이 성도 유명석 권사
(5교구) 이순창 성도
(6교구) 박기남 성도 이영희 권사 이춘실 성도 하정자 권사
(7교구) 김동호 권사 박두호 장로 유형석 집사
(8교구) 송인순 권사 조옥순 권사
(9교구) 김진숙 권사 신영순 집사 황재연 권사
(10교구) 진승근 집사
(11교구) 신정순 권사
(12교구) 남정열 집사 윤정식 권사 최영순 권사
(13교구) 강민자 집사 문금희 성도 박성희 집사 신혜진 집사
임광호 집사 최향봉 권사
(14교구) 문옥희 집사 정수주 성도

금주의 성구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9:18)

Give ear, O God, and hear; open your eyes and see the desolation of the city that bears your Name. We do not make requests of you because we are righteous, but because of your great mercy (Daniel 9:18 [NIV])

2007 홍해작전 - 2부 부흥사경회 현장 취재

속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떨쳤던 그 호연지기가 우리에게겐 필요합니까...”



반환점을 둔 홍해작전이 제2부 부흥사경회로 접어들면서 만난 김성봉 목사님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맞보지 못한 색다른 말씀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서울대 철학과와 아세아연합신학대, 독일 뮌스터대 등에서 학위를 받고 현재 신반포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는 김성봉 목사님은 비교적 조용한, 그러나 날선 검처럼 예리한 말씀으로 주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 등에 관한 말씀을 일주일간 전했다.

지난 11일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응하는 역사”란 제목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사야 40장의 “성도의 호연지기”, 신명기 28장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열왕기상 18장의 “기도응답”, 베드로전서 2장의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 등을 주제로 한 말씀이 선포됐다.

적을 섬기게 만드신다.” “바울이 일평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노후보장은 커녕, 감옥신세를 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닌, 불가시적이고 내면적인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15년에 이르도록 해마다 진행된 홍해작전에서 항상 이종윤 위임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했지만 올해 홍해작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보내주셨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힘쓰는 성도들에게 이번 홍해작전은 그래서 더욱 각별한 작전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민철(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사랑부 노방전도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며 정성껏 준비한 다과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조그마한 마음들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혀질 것을 믿는다. 이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랑부 학생들을 더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성도님들의 관심을 바란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겠어요” 마음 문을 열어주는 영혼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랑부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맞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편집부

사랑부(지도 주원순 선생)는 지난 6월 10일(주일)에 한티공원 앞과 주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하며 노방 전도에 나섰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몸도 마음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지만 활체에 몸을 의지한 사랑부 학생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 활동을 펼쳤다.

이는 교사, 학생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한결같은 신앙심의 발로라 믿는다.

갈고 닦은 핸드벨 연주단, 기타팀의 “내 모습 이대로” 찬양 속에 이루어진 이번 전도를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들은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가슴 저리는 안타까운 생활 속에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얀 목련

신동기 권사(12교구)

봄을 몰고 온
푸른 비명이어

덧난 봄날
알몸 된 목련
육체를 가로질러
그 나라의
목숨 내어놓은
순결한 여인들이여

연한 순으로
잘 여머진 울음찬 목련
뚝뚝 떨어져 내린 침묵!

떨 깎는 자앞에
잠잠한 양같이
눈물이 피 되어
우리 가슴에 떨어지고

또 하나의 죽음
삭발한 머리칼
이 나라 역사 위에
빛으로 흩어져
이 땅을 진동한다.

하얀 목련
“꽃잎 풀어
제 몸으로
봄을 활짝 열고
십자가 깃발 되어
이 나라 심장 한 가운데
정오의 빛처럼 걸려 있어라.

위 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전국여성전도회 연합회 주최 2007년 문예백일장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지난 3월 5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 중 삭발하신 여 목사님과 여 장로님 외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쓴 헌시이다.

이종운 목사 목회서신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에게 드리는 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문안드립니다.

목사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 주일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회자 신학세미나 종강식을 남겨놓고 그리고 흥해작전의 대사(大事)를 진행 중에 갖난 아기를 떼어놓고 제갈 길을 가버린 매정한 엄마와 같은 모습 때문에 죄의식까지 느껴야 하는 아픈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100주년을 맞는 2010년에 3차 세계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고문단(Advisory Council)에 부족한 종을 아시아 의장 자격으로 참여케 하여 지난 1년간 매월 국제전화 회의를 하면서 2007년 6월 18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각국의 의장단과 고문단 모임 즉 세계 지도자 회의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김치세미나와 흥해작전 등 중요행사들이 있는 우리교회 형편상 저는 처음부터 참가를 못할 것으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제전화 회의에서 고문단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여를 독려했던 중 100% 참여의사를 밝히는데 저 혼자 못갈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e-mail로 알려주겠다고 미루어 놓았었습니다.

때마침 미국 장로교회(PCA) 35차 총회가 미국 멤피스에서 6월11일부터 열리는데 총회참여 의사를 묻는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1975년 스코틀랜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에 돌아와 보니 한국인 이민자들이 몰려와 도움을 요청하여 밤에 영어반을 개설하고 저들의 정착을 돕다보니 자연스럽게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를 개척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설교를 하는 저를 성도들이 박사호칭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미국장로교회(PCA)의 목사시함을 거쳐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된 것을 비로소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안수를 받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홀러신학교에서 강의청탁을 받고 필라델피아를 떠난 후 귀국하여 지금까지 총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 언젠가는 꼭 사랑의 빛을 깊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입 후 여러차례 PCA 멤버쉽 포기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노회 측은 이중회원권(Dual Membership)을 인정하였으니 그대로 이름을 남겨놓으라 명함에 순종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을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선권 선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달력 앞에서 제 나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영어예배를 지도하시는 킨슬러 목사님의 은퇴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해외에 나가 젊고 유능하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일꾼을 찾아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도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그 무렵 미국 애틀랜타 실로암 교회에서 집회요청이 있어 PCA 총회가 끝나는 6월15일(금)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인도하고 18일(월)에 부다페스트에 가면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란서의 개혁신학교가 우리교회에 지원요청을 해온바 있어 귀국길에 Aix in Province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면 4가지 일을 한 줄에 끼워 처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 출국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곳 애틀랜타에서 새벽 3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인도시간이 다가오지만 시차관계로 자연스럽게 흥해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PCA 총회가 열린 멤피스는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미국 남부 도시로서 엘비스 같은 Rock n Roll 음악의 발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된 현장이 보 관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1,200여 명의 PCA총대들 중에는 300여개의 한인교회 목사들 특히 15세 젊은 목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제 모교 웨스트민스터의 교수진과 동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총회장 선거를 3분 만에 끝내고 취임사를 기도로 대신하고 각 부 보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려는 총대들의 모습으로 비춰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유감은 총대 전원이 백인 일색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교회의 약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애틀랜타 실로암 교회 부흥회에 저희 두 아이들 미리와 미경이 뉴욕과 미시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 기쁜 만남도 가졌습니다. 둘째 미영은 가을 학기 때 한국에 강의차 가족과 함께 온다니 그때 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일까지 5번의 설교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헝가리로 날아갈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07.6.16

주안에서 목사 이종운 드립니다.

찬양예배 특별 순서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류충기 집사(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의 독창으로 준비된다. 류충기 집사는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외 3곡을 하나님과 성도들께 들려드린다.

동정

■ 교역자 전화번호 변경: 임규현 목사 010-4212-5195

■ 주간식당 봉사: 스테반회(6.10) 권사회(6.17)

■ 금주의 식사: 김광목 집사 서영희 권사

김광민 집사 박민숙 집사 가정

(모친 박순옥 권사 팔순 감사)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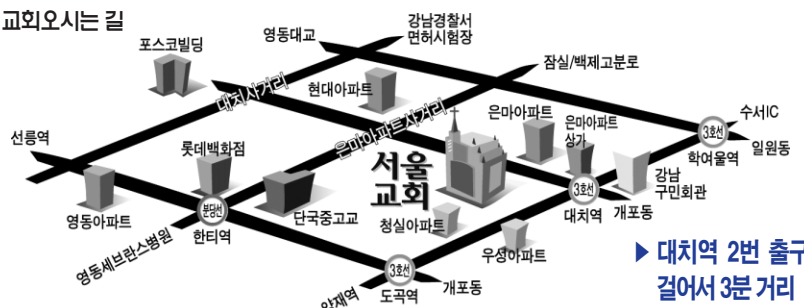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흥해작전(6/6-25) 승전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이종운 목사 해외 집회 인도와 회의 참여 열매 있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